

고전콘서트 10탄

정약용의 『탕론湯論』, 『원정原政』, 『원목原牧』

윤홍식

1. 탕론(湯論, 탕왕에 대해 논함)

1-1.

“탕왕湯王이 걸槃을 내쫓은 것은 옳은 것인가?”, “신하가 임금을 친 것은 옳은 것인가?” 이르노니 이것은 옛 도道이지, 탕왕이 처음 한 것이 아니다. 신농씨神農氏의 세상이 쇠퇴하여 제후들이 서로 공격하며 포박해지자, 현원씨가 방패와 창을 거둬 써서 받들지 않는 자들을 정벌하니 제후들이 모두 귀의하였다. 그러다 염제炎帝(신농씨)와 관천阪泉의 들에서 싸웠으니, 세 번 싸워서 뜻을 얻어 신농씨를 대신하였다. 이는 『사기史記』의 「오제본기五帝本紀」에 보인다. 이것은 신하가 임금을 친 것이니, 황제가 먼저 한 것이다. 장차 신하가 임금을 친 것을 죄주려면, 황제가 악당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탕왕에게 어찌 따지겠는가?

湯放桀可乎 臣伐君而可乎 曰古之道也 非湯勦爲之也 神農氏世衰 諸侯相虐 軒轅習用干戈 以征不享 諸侯咸歸 以與炎帝戰于阪泉之野 三戰而得志 以代神農 見本紀則是臣伐君 而黃帝爲之 將臣伐君而罪之 黃帝爲首惡 而湯奚問焉

* 전한의 역사가 사마천(司馬遷),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 현원씨의 때에, 신농씨의 세상이 쇠퇴하여 제후들이 서로 공격하였으며 백성들에게 포박하였다. 그러나 신농씨는 그들을 정벌할 수 없었다. 이에 현원씨가 방패와 창을 거둬 써서 받들지 않는 자

들을 정벌하였다. 이에 제후가 모두 와서 복종하였다. 현원씨가 이에 덕을 닦고 병사를 진작시키고, 5기운을 다스리고 5종자(기장·피·콩·벼·보리)를 잘 기르고, 만백성을 잘 어루만지고 4방을 바로잡았다. 또한 웅熊, 비羆, 비貔, 휴貅, 추貔, 호虎(짐승, 용맹한 부대)를 가르쳐, 염제와 관천阪泉의 들에서 싸웠다. 세 번 싸운 뒤에 그 뜻을 얻었다. 치우蚩尤가 난리를 일으켜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에 황제가 제후들의 군사를 취하여, 치우와 더불어 탁록涿鹿의 들에서 싸웠다. 마침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그러자 제후들이 모두 현원씨를 높이어 ‘천자天子’로 삼아서 신농씨를 대신하였으니 ‘황제黃帝’가 되었다.

軒轅之時 神農氏世衰 諸侯相侵伐 暴虐百姓 而神農氏弗能征 於是軒轅乃習用干戈 以征不享 諸侯咸來賓從 諸侯咸歸軒轅 軒轅乃修德 振兵 治五氣 藝五種 撫萬民 度四方 教熊羆貔貅羆虎 以與炎帝戰於阪泉之野 三戰 然後得其志 蚩尤作亂 不用帝命 於是黃帝乃征師諸侯 與蚩尤戰於涿鹿之野 遂禽殺蚩尤 而諸侯咸尊軒轅爲天子 代神農氏 是爲黃帝

* 삼황三皇

① 복희씨伏羲氏 ② 신농씨神農氏 ③ 현원씨軒轅氏

* 『주역』 「계사전」

옛적에 복희씨(包犧氏)가 천하에 왕 노릇을 하였다. ... ‘복희씨’가 죽자 ‘신농씨’가 일어났다.

古者 包犧氏之王天下也 ... 包犧氏沒 神農氏作

* 『사기집해史記集解』

응소가 말하기를 “치우는 옛날 천자이다”라고 하였다.

應劭曰 蚩尤古天子

* 『사기정의史記正義』

공안국이 말하기를 “구려의 임금을 치우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孔安國曰 九黎君號蚩尤是也

* 후한의 학자 채옹(蔡邕, 132~192)의 『독단獨斷』

‘천왕’은 여러 하夏의 칭호이니, 천하가 귀의하여 돌아가는 바이니 천왕이라고 칭한다. ‘천자’는 이적의 칭호이니, 하늘이 아버지이고 땅이 어머니이니 천자라고 칭한다.

天王 諸夏之所稱 天下之所歸往 故稱天王 天子 夷狄之所稱 父天母地 故稱天子

* 『맹자』「양혜왕梁惠王 하」

제나라 선왕이 질문하길 “탕湯왕이 걸레를 내쫓고, 무武왕이 주紂를 쳤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맹자께서 대답하시길 “경전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맹자) “사랑(仁)을 해치는 자를 ‘해치는 자’라고 하고, ‘정의’(義)를 해치는 자를 ‘상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해치고 상하게 하는 사람을 일러 ‘홀로된 사내’(천하에서 버림받음)라고 합니다. 홀로된 사내인 주紂를 주살하였다는 것은 들어봤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시하는 공복公僕)**

齊宣王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臣弑其君可乎 曰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 『대학大學』

「강고康誥」에 이르기를 “천명天命은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선善하면 얻고 선善하지 못하면 잃음을 말한 것이다. (천명은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심’을 따르는 이와 함께한다.)

康誥曰 惟命不于常 道善則得之 不善則失之矣

* 동양의 정치이론

‘민심民心’[백성의 양심, 백성 모두를 위하는 마음]이 바로 ‘천심天心’이다. 정부가 백성을 위하는 양심을 존중하여, 백성의 양심이 이를 지지하면, 그것이 곧 하늘이 지지하는 것이다.

모든 백성은 ‘하늘’로부터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가하지 말자!”는 ‘양심’을 따를 것을 명령(天命)받았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늘과 모든 백성 서로를 위해 이 양심을 따를 것을 암묵적으로 합의·계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늘과 백성의 양심을 존중할 ‘지도자’를 뽑아 임명하게 된다. 백성이 암묵적 합의·계약으로 군주를 임명하는 것이니, 민심을 천심으로 볼 때, 이 임명이 그대로 ‘천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천명을 받은 것이다.

정부가 양심을 저버려서, 백성의 양심이 떠나면 천명이 떠나게 된다! 주권은 늘 백성에게 있다! 늘 백성의 ‘양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정치이다!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은, 정부가 양심적으로 정치를 하여, 국민의 양심을 존중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가 바로 ‘대동大同정치’(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이며 ‘왕도王道정치’(공익을 중시하는 진정한 왕이 하는 정치)이다!

* 로크의 사회계약론

정부는 국민과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그리고 계약한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민은 저항할 수가 있다. (대의민주제, 제한군주제)

* 루소의 사회계약론

정부(집행권 담당)는 ‘일반의지’(공익을 추구하는 의지, 전 국민적 양심)에 합당하게 정치를 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의지를 어기는 정치를 할 때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 국민들은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반의지’에만 복종하며, 그것을 공동체와 ‘계약’하여 국가를 이루었다. ‘인민주권’이니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집행권은 입법권에 종속된다. 따라서 군주정·귀족정·민주정은 집행권의 숫자상 구별에 지나지 않는다. (직접민주제)

2-2.

대저 ‘천자天子’는 어떻게 하여 있게 된 것인가? 장차 하늘이 천자를 내려 보내서 세운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서 천자가 된 것인가? 5가家가 1인隣이 되니, 5가에서 장長으로 추대된 자가 ‘인장隣長’이 된다. 5인隣이 1리리가 되니, 5인에서 장으로 추대된 자가 ‘이장里長’이 된다. 5비鄙가 1현縣이 되니, 5비에서 장으로 추대된 자가 ‘현장縣長’이 된다. 그리고 여러 현장들이 함께 추대한 자가 ‘제후諸侯’가 되며, 제후들이 함께 추대한 자가 ‘천자天子’가 된다. 천자는 무리가 추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夫天子何爲而有也 將天雨天子而立之乎 抑涌出地爲天子乎 五家爲鄰 推長於五者爲隣長 五鄰爲里 推長於五者爲里長 五鄙爲縣 推長於五者爲縣長 諸縣長之所共推者爲諸侯 諸侯之所共推者爲天子 天子者 衆推之而成者也

2-3.

대저 무리가 추대하면 이루어지며, 또한 무리가 추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5가가 화합하지 못하면 5가가 의논하여 ‘인장’을 바꾸며, 5인이 화합하지 못하면 25가가 의논하여

‘이장’을 바꾼다. 9후侯와 8백伯이 화합하지 못하면 ‘천자’를 바꾼다. 9후와 8백이 천자를 바꾸는 것은, 5가가 인장을 바꾸는 것과 25가가 이장을 바꾸는 것과 같다. 누가 신하로서 임금을 쳤다고 할 수 있겠는가?

夫衆推之而成 亦衆不推之而不成 故五家不協 五家議之 改鄰長 五鄰不協 二十五家議之 改里長 九侯八伯不協 九侯八伯議之 改天子 九侯八伯之改天子 猶五家之改鄰長 二十五家之改里長 誰肯曰臣伐君哉

2-4.

또한 바꿈에 있어서도 천자가 되지 못하게 할 뿐이었으니, 강등하여 제후로 복귀하는 것은 허용하였다. 그러므로 당후唐侯가 주朱(요임금의 아들 단주丹朱)였으며, 우후虞侯가 상균商均(순임금의 아들)이었다. 하후夏侯는 기자杞子(우유임금의 후예 동루공東樓公)였으며, 은후殷侯는 송공宋公(은殷 나라 주왕紂王의 이복형인 미자계微子啓)이었다. 단절시켜서 제후로 삼지 않은 것은, 진秦나라가 주周나라를 치고부터이다. 이에 진나라도 단절되고 제후가 되지 못하였고, 한漢나라도 단절되어 제후가 되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그 단절되어 제후가 되지 못함을 보고, “천자를 치는 자는 인자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데, 어찌 실정이겠는가?

又其改之也 使不得爲天子而已 降而復于諸侯則許之 故唐侯曰朱 虞侯曰商均 夏侯曰杞子 殷侯曰宋公 其絕之而不侯之 自秦于周始也 於是秦絕不侯 漢絕不侯 人見其絕而不侯也 謂凡伐天子者不仁 豈情也哉

2-5.

뜰에서 춤추는 사람이 64인인데, 그 중에서 1사람을 선발하여 우

보(羽葆)(우보당(羽葆幢, 깃털로 만든 의장기)를 잡고 우두머리가 되어 춤을 추는 것을 지휘하게 하였다. 이때 그 우보를 잡은 자가 능히 좌우의 알맞은 절도를 지키면, 무리가 존중하여 “우리의 무사(舞師)(춤을 가르치는 벼슬)여!”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 우보를 잡은 자가 능히 좌우의 알맞은 절도를 지키지 못하면, 무리가 그를 붙잡아 끌어내려서 무리에 복귀시킬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선발하여 유능한 자를 올리고서, 존중하여 “우리 무사여!”라고 부를 것이다. 그 붙잡아 끌어내리는 자도 ‘무리’(衆)이며, 올려서 존중하는 자도 또한 ‘무리’이다. 대저 올려서 존중하고서, 그 올라가서 남을 대신한 사람을 벌하려한다면, 어찌 그런 도리가 있겠는가?

舞於庭者六十四人 選於中 令執羽葆 立于首以導舞者 其執羽葆者能左右之中節 則衆尊而呼之曰我舞師 其執羽葆者不能左右之中節 則衆執而下之 復于列 再選之 得能者而升之 尊而呼之曰我舞師 其執而下之者衆也 而升而尊之者亦衆也 夫升而尊之 而罪其升以代人 豈理也哉

2-6.

한(漢)나라 이후로는 ‘천자’가 ‘제후’를 세웠고 제후가 ‘현장’을 세웠으며, 현장이 ‘이장’을 세웠고 이장이 ‘인장’을 세웠다. 그래서 감히 공손하지 않은 것을 ‘역(逆)’이라고 불렀다. 소위 ‘역’이란 무엇인가? 옛날에는 아래에서 위를 임명하였으니, 아래에서 위를 임명하는 것이 ‘순(順)’이었다. 이제는 위에서 아래를 임명하니, 아래에서 위를 임명하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

自漢以降 天子立諸侯 諸侯立縣長 縣長立里長 里長立鄰長 有敢不恭其名曰逆 其謂之逆者何 古者下而上 下而上者順也 今也上而下 下而上者逆也

2-7.

그러므로 왕망王莽(전한前漢 타도 신新 건국)·조조曹操(위魏 무제로 추존)·사마의司馬懿·유유劉裕(남조 송宋 무제)·소연蕭衍(남조 양梁 무제) 등은 역이지만, 무왕武王·탕왕湯王·황제黃帝 등은 밝은 왕이요 성스러운 황제이다. (백성 모두의 이익을 위해 군주로 추대된 것은 순順이며, 사익을 위해 백성이 추대한 군주를 해치고 군주가 된 것은 역이다!) 그 까닭을 모르고 번번이 탕왕과 무왕을 깎아내려 요순보다 낮추고자 한다면, 어찌 이른바 고금古今の 변화에 통달한 자라고 하겠는가? 장자莊子が 말하기를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故莽操懿裕衍之等逆也 武王湯黃帝之等 王之明帝之聖者也 不知其然 輒欲貶湯武以卑於堯舜 豈所謂達古今之變者哉 莊子曰螽蛄不知春秋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2. 원정(原政, 정치의 원상)

2-1.

‘정政’(정치)이라는 것은 **“바로잡는다!”(正)**는 것이다. 균등한 우리 백성인데, 어찌하여 누군가에게는 땅의 이익을 겸병하여 부귀하고 후하게 하며, 어찌하여 누군가에게는 땅의 은택을 막아서 빈곤하고 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하여 땅을 측량하여 백성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 바로잡으니, 이것을 일러 ‘정政’이라고 한다. **(정치의 핵심은 소수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함이다!)**

政也者 正也 均吾民也 何使之竝地之利而富厚 何使之阻地之澤而貧薄 爲之計地與民而均分焉 以正之 謂之政

2-2.

균등한 우리 백성인데, 어찌하여 누군가에게는 땅의 풍요로움이 쌓여서 그 남는 곡식을 버릴 정도가 되게 하며, 어찌하여 누군가에게는 땅의 인색한 것도 없어서 모자란 곡식을 걱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하여 배와 수레를 만들고 저울과 도량을 신중히 정하여, 그 재화를 옮겨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하게 하여 **바로잡으니**, 이것을 일러 ‘정政’이라고 한다.

균등한 우리 백성인데, 어찌하여 누군가에게는 강하여 멋대로 집어삼켜서 커지게 하며, 어찌하여 누군가에게는 약하여 빼앗김을 당하여 멸망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하여 군대를 키워서 죄를 성토하고 토벌하여, 망해가는 자를 보존하고 단절되어가는 자를 이어주어 **바로잡으니**, 이것을 일러 ‘정政’이라고 한다.

均吾民也 何使之積土之所豐而棄其餘 何使之闕土之所嗇而憂其匱
爲之作舟車謹權量 遷其貨得通其有無 以正之 謂之政 均吾民也 何
使之強而恣其吞以大 何使之弱而被其削以滅 爲之張皇徒旅 聲罪致
討 存亡繼絕 以正之 謂之政

2-3.

균등한 우리 백성인데, 어찌하여 누군가에게는 속이고 능멸하며 완고하고 악독하되 그 4지를 안락하게 지내게 하고, 어찌하여 누군가에게는 공손하고 근면하고 충직하고 선하되 복이 미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하여 ‘형벌’로 징계하고 ‘포상’으로 칭찬하여, 죄와 공을 구별하여 **바로잡으니**, 이것을 일러 ‘정政’이라고 한다.

균등한 우리 백성인데, 어찌하여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으면서도 높은 자리에 처하여 악을 전파하게 하고, 어찌하여 누군가에게는 현명하되 아랫자리에서 복종하게 하여 덕을 가리게 할 수 있겠는가?

가? 이를 위하여 ‘붕당朋黨’(사익을 위한 패거리)을 없애고 ‘공도公道’(모두에게 좋은 길)를 넓히고, 현명한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러나게 하여 **바로잡으니**, 이것을 일러 ‘정政’이라고 한다.

均吾民也 何使之欺凌頑惡而安其四體 何使之恭勤忠善而福不加及 爲之刑以懲 爲之賞以獎 別罪功以正之 謂之政 均吾民也 何使之愚而處高位 以播其惡 何使之賢而誦於下 以翳其德 爲之祛朋黨恢公道 進賢退不肖以正之 謂之政

2-4.

밭도랑과 붓도랑을 파고 수리水利 시설을 일으켜 장마와 가뭄을 다스리는 것, 소나무·잣나무·의나무·오동나무·가래나무·옻나무·느릅나무·버드나무·배나무·대추나무·감나무·밤나무 등의 무리를 심어서, 궁실宮室을 일으키고 관곽棺槨도 만들고, 5곡을 보조하기도 하는 것, 소·양·당나귀·말·닭·돼지·개 등을 길러 병사와 농민을 씩씩하게 하고 노인들 봉양하는 것, 우인(虞人 산림 소택山林沼澤을 맡은 벼슬)이 때에 알맞게 산림山林에 들어가서 사나운 짐승과 아름다운 새들을 사냥하여 해독을 멀리 하고 가죽과 고기를 베푸는 것, 공인工人이 때에 알맞게 산림에 들어가서 금·은·구리·철과 단사丹砂·보옥寶玉을 캐서 재원을 불리기도 하고 여러 쓰임에 공급하기도 하는 것, 의사醫師가 병리病理를 강구하고 약성藥性을 변별하여 전염병과 요절을 막는 것, 이것을 일러 왕정(王政, 공익을 위한 왕도의 정치)이라고 한다.

濬畎澮興水利 以平其滂旱 樹之松柏椅桐梓漆榆柳梨棗柘栗之屬 以興宮室 以供棺槨 以助五穀 畜之牛羊驢馬雞豚狗彘 以壯兵農 以養耆老 虞以時入山林 畋獵猛獸美禽 以遠害毒 以布皮味 工以時入山林 采金銀銅鐵丹砂寶玉 以長貨源 以給諸用 醫師講究病理 辨別藥性 以禦疫癘夭札 此之謂王政

2-5.

왕정(백성 모두를 위한 정치)이 사라지면 백성이 곤궁해지며(소수만 부유해짐), 백성이 곤궁해지면 국가는 빈곤해진다. 국가가 빈곤해지면 부렴賦斂이 번잡해지며, 부렴이 번잡해지면 인심이 떠나게 된다. ‘인심’이 떠나게 되면 ‘천명’도 가버린다. (국민이 하늘이 명령한 양심에 따라 공익을 중시하는 새로운 군주를 찾게 됨) 그러니 급하게 해야 할 것이 ‘정치’(바로잡음)에 있는 것이다.

王政廢而百姓困 百姓困而國貧 國貧而賦斂煩 賦斂煩而人心離 人心離而天命去 故所急在政也

3. 원목(原牧, 지도자의 원상)

3-1.

목자牧者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자를 위해 사는 것인가? 백성이 좁쌀·쌀과 삼실·실을 산출하여 목자를 섬기고, 백성이 수레·말과 따르는 종자를 내놓아 목자를 보내고 맞이하며, 백성이 그 고혈膏血과 진액·골수를 다하여 목자를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목자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목자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牧爲民有乎 民爲牧生乎 民出粟米麻絲 以事其牧 民出輿馬騶從 以送迎其牧 民竭其膏血津髓 以肥其牧 民爲牧生乎 曰否否 牧爲民有也

3-2.

아득한 옛날에는 ‘백성’이 있었을 뿐, 어찌 목자가 있었겠는가? 백성끼리 이리저리 모여 살았을 것이다. 이때 한 사내가 있어 이웃과 싸우다가 해결을 보지 못하자, ‘공정한 말’(公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양심에 근거한 말)을 잘 하는 어른이 있음에, 그를 찾아가 바로잡았다. 4방의 ‘인隣’이 모두 복종하여, 그를 추대하여 받들어 존중하며 ‘이정里正’이라고 불렀다. 이에 많은 ‘이리’의 백성이 이리끼리 싸우다가 해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뛰어나고 아는 것이 많은 어른을 찾아가서 바로잡았다. 많은 이리가 모두 복종하여, 그를 추대하여 받들어 존중하며 ‘당정黨正’이라고 불렀다.

많은 ‘당黨’의 백성이 당黨끼리 싸우다가 해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현명하고 덕이 있는 어른을 찾아가서 바로잡았다. 많은 당黨이 모두 복종하여 ‘주장州長’이라고 불렀다. 이에 많은 ‘주州’의 장長들이 한 사람을 장長으로 추대하여 ‘국군國君’(제후)이라고 불렀다. 많은 ‘국國’의 군君들이 한 사람을 장長으로 추대하여 ‘방백方伯’(제후의 장長)이라고 불렀다. 4방의 방백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종宗’으로 삼고, ‘황왕皇王’이라고 불렀다.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 일어나니, 목자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牧爲民有乎 民爲牧生乎 民出粟米麻絲 以事其牧 民出輿馬騶從 以送迎其牧 民竭其膏血津髓 以肥其牧 民爲牧生乎 曰否否 牧爲民有也 邃古之初 民而已 豈有牧哉 民于于然聚居 有一夫與鄰闕莫之決 有叟焉善爲公言 就而正之 四鄰咸服 推而共尊之 名曰里正 於是數里之民 以其里闕莫之決 有叟焉俊而多識 就而正之 數里咸服 推而共尊之 名曰黨正 數黨之民 以其黨闕莫之決 有叟焉賢而有德 就而正之 數黨咸服 名之曰州長 於是數州之長 推一人以爲長 名之曰國君 數國之君 推一人以爲長 名之曰方伯 四方之伯 推一人以爲宗 名之曰皇王 皇王之本 起於里正 牧爲民有也

3-3.

이때에는 ‘이정里正’이 민망民望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당정黨正’에게 올렸으며, 당정도 민망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주장州長’에

게 올렸다. 주장은 ‘국군國君’에게 올렸으며, 국군은 ‘황왕皇王’에게 올렸다. 그러므로 그 법이 모두 백성에게 편리하였다. 후세에는 1인이 스스로 ‘황제’로 선 다음, 그 자식과 동생, 그 시어(侍御, 잡무 담당하는 이)와 복종(僕從, 시중을 드는 이)까지 모두 봉봉하여 ‘제후’로 삼았다. 제후들은 그 사인私人들을 가려서 ‘주장’으로 세우고, 주장은 또 그 사인들을 천거하여 ‘당정·이정’으로 삼았다. 이에 ‘황제’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법을 제정하여 ‘제후’에게 주고, 제후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법을 제정하여 ‘주장’에게 주고, 주장은 ‘당정’에게 주고, 당정은 ‘이정’에게 준다. 그러므로 그 법이 모두 군주를 높이고 백성을 낮추는 것이며,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는 것이어서, 일견 흡사 백성이 목자를 위해 사는 것 같다.

當是時 里正從民望而制之法 上之黨正 黨正從民望而制之法 上之州長 州上之國君 國君上之皇王 故其法皆便民 後世一人自立爲皇帝 封其子若弟及其侍御僕從之人 以爲諸侯 諸侯簡其私人以爲州長 州長薦其私人以爲黨正里正 於是皇帝循己欲而制之法 以授諸侯 諸侯循己欲而制之法 以授州長 州授之黨正 黨正授之里正 故其法皆尊主而卑民 刻下而附上 壹似乎民爲牧生也

3-4.

지금의 ‘수령守令’은 옛날의 ‘제후’이다. (한 도道의 책임자인 관찰사는 방백方伯·도백道伯, 현재의 도지사) 그 궁실宮室과 수레·말을 바치고,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좌우의 편패(便嬖, 좌우에 두고 부리는 신하)와 시어侍御와 복종僕從의 사람이 국군國君에 견줄만하다. 이에 오만하여 스스로 높다 여기고 편안하여 스스로 즐거워하여, 자신이 목자임을 잊어버린다.

今之守令 古之諸侯也 其宮室輿馬之奉 衣服飲食之供 左右便嬖侍御

僕從之人 擬於國君 其權能足以慶人 其刑威足以怵人 於是傲然自尊
夷然自樂 忘其爲牧也

3-5.

한 사내가 싸우다가 찾아와 바로잡으려 하면, 불안해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시끄러운가?”라고 하며, 한 사내가 굶어서 죽으면 “네가 스스로 죽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좁쌀·쌀과 삼실·실을 산출하여 섬기지 않으면, 매질이나 몽둥이질을 하여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서야 멈추며, 날마다 돈 꾸러미나 취하여 세면서 날날이 기록하고 협주(夾注, 문장 사이에 끼워 넣은 주해)를 하고 도을(塗乙, 문장의 오자를 지우고 탈자를 넣는 것)을 한다. 돈과 베를 거두어들여서 밭·집을 경영하고, 권문귀족과 재상에게 뇌물을 보내는 것을 일삼아 훗날의 이익을 도모한다. 그래서 “백성이 목자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그런 도리가 있겠는가? 목자가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有一夫闕而就正 則已蹴然曰何爲是紛紛也 有一夫餓而死 曰汝自死耳 有不出粟米麻絲以事之 則撻之梃之 見其流血而後止焉 日取筭緡曆記夾注塗乙 課其錢布 以營田宅 賂遺權貴宰相 以徼後利 故曰民爲牧生 豈理也哉 牧爲民有也